

탐구 영역 2개 과목 평균 2.5등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찾아보니 탐구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네요. 예를 들어 한 과목은 2등급을 다른 과목은 3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요. 상위 1개 과목 반영이라면 두 과목 중 더 잘 본 과목으로 반영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2개 과목 평균이라면 2.5등급이 되는데 2.5등급은 2등급인가요 3등급인가요?

서경민(서울 관악구 서원동)

대부분의 대학은 2.5등급으로, 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2등급으로 인정합니다.

최저 기준에 관한 표현은 수시 입학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상위 1개 과목 반영이라면 2등급과 3등급 중 2등급을 반영합니다. 탐구 2개 과목 모두 2등급 이내라면 2등급과 3등급은 최저 기준을 못 맞춘 것입니다. 합 60이라면 2.5등급을 그대로 적용, 합 5.5등급이라면 최저 기준을 맞춘 것이고 합 6.5등급이 되면 못 맞춘 것입니다. 단 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하기 때문에 2.5등급을 2등급으로 인정합니다.

MORE TIP

탐구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의예과)·고려대·동덕여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대·성균관대·송실대·아주대(의학과)·인하대(의예과)·중앙대·한국외대입니다. 이 대학들은 평균 등급을 나온 숫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수시 입학 요강에서 최저 기준을 설명하며 별도로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는 탐구영역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반영함'이라고, 성균관대는 '탐구 2개 과목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2.5등급이라면 2등급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 중 두 대학이 유일하게 소수점 이하를 버림합니다.

같은 대학, 같은 전형이라 해도 최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수시 입학 요강은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고려대 학교 추천 I 전형과 학교 추천 II 전형은 2개 과목 평균을, 일반 전형에서 인문·자연 계열은 상위 1개 과목을, 의과대학은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중앙대는 논술 전형에서 인문 계열과 의학부는 2개 과목 평균을, 자연 계열은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

취재 순희송 리포터 sonti970@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 (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